

## 중부평야지 논 봄감자의 종서 크기에 따른 파종 및 수확 시기별 수량 및 상품성

박정화<sup>1\*</sup>, 양운호<sup>1</sup>, 김숙진<sup>1</sup>, 강신구<sup>1</sup>, 최종서<sup>1</sup>, 김인경<sup>1</sup>

<sup>1</sup>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,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재배환경과

### [서론]

쌀 생산조정의 일환으로 논에 벼 대체 타 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있고, 최근 소득이 높은 봄감자를 재배하는 면적이 늘고 있다. 그러나 문제점 중 하나는 홍수출하에 의한 가격하락이다. 따라서 본 연구는 중부지역의 논에서 감자를 조기에 수확하고 상품성을 높여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종서 크기를 달리하여 조식과 적식에 파종하여 수확시기별로 수량 및 상품성을 비교하였다.

### [재료 및 방법]

수원의 논 시험포장에서 봄에 품종 수미를 파종하였는데 종서의 크기를 대 42g, 중 33g, 소 21g 3종류로 하여 조식은 2017년 3월 14일에, 적식은 3월 24일에 파종하였다. 수확시기는 조기 수확인 6월 8일부터 만기 수확 6월 28일까지 7일 간격으로 4회 수확하여 처리별로 수량 및 상품성을 조사하였다.

### [결과 및 고찰]

주당 괴경 총개수를 보면 파종시기로는 조식보다 적식이 많았고, 수확시기로는 조식, 적식 모두 6월 14일(파종 후 조식 92일, 적식 82일) 수확구가 다른 수확시기 보다 다소 많았다.

종서 크기별 파종 및 수확 시기에 따른 상품(80g 이상 괴경 수)은 조식의 경우 6월 14일 수확구에서 상품이 가장 많았고 수확시기 모두 종서 크기 대, 중, 소 순서로 상품수가 많았다. 적식의 경우 일정한 경향은 없었고 6월 21일 수확 이후에는 대 크기보다 중, 소 크기 종서에서 상품수가 많았다.

일반적으로 밭에서 종서 크기가 30g이 좋다고 하나 중부 평야지 논에서는 종서크기를 40g이상으로 조식하여 6월 중순경에 수확하는 것이 상품성이 높았다.

### [사사]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어젠다 사업(과제번호: PJ01175903)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

\*주저자: Tel. 031-695-4131, E-mail. jhp@korea.kr